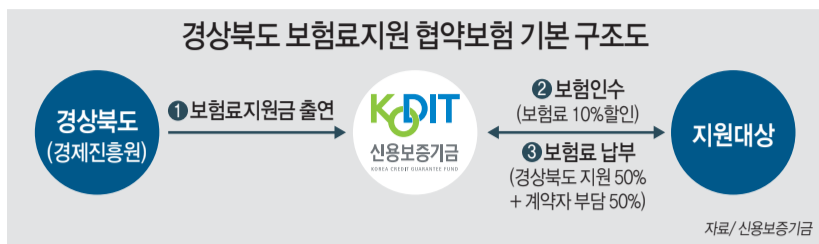


금융권, 대구-경북지역 지원 총력전

# 대출 확 풀고, 보험료 팍 깎고

우리銀, 특별전담심사반 운영  
기업대출, 2영업일 이내 결과

신보, 매출채권보험지원 협약  
신속한 보험금 지급, 도산 방지



금융권이 대구·경북지역 지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별전담심사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전담심사반은 대구·경북지역 기업이 신청한 대출에 대해 2영업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 지역 개인사업자 6000여곳, 중소기업 1100여곳을 대상 사업자로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또 대구·경북지역 영업점장에게 한시적으로 추가 대출 전결권을 부여한다. 매출이 감소한 요식업, 숙박업 등의 업체에 대출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다. 영업점장과 본부의 심사역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금융 컨설팅도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

리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개인 고객은 전화 통화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법인사업자는 직무대행자에 의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신보보증기금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상북도는 신보에 10억원을 출연해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신보는 보험료를 10% 할인한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제조업, 도소매업 등 매출채권보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우선 지원한다. 이번 협약 관련

보험상품은 경상북도의출연이 완료되는 20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이번 협약 외에도 신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2000억원 확대하고, 가입요건 완화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신보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적보험 제도다.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신보가 보상한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보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주·나유리기자 hj89@metroseoul.co.kr

## CPA, IT 비중 높이고 제도 손질

금융위, 회계사 제도개선TF팀 구성  
IT과목 사전학점 인정여부 논의  
직업윤리교육 강화 필요성 강조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IT) 관련 출제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처리기술 등 IT가 발전하면서 감사인의 IT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공인회계사(CPA) 시험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행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시험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TF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비롯해 학계, 회계법인 및 기업의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TF는 IT과목의 사전학점 인정여부를 논의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

상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등 IT 관련 과목의 인정학점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손 부위원장은 "대학 현장에서 IT관련 과목 개설이 미흡해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먼저 시험제도를 개편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면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과목내 IT관련 출제 비중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2019년부터 회계사시험 출제범위에 '빅데이터·데이터분석과 통계'를 포함시켜 미래 IT로 인한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유리 기자

## 작년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709억 환급

연매출 30억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신규가맹점 89%가 환급대상 해당

지난해 하반기 문을 연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납부한 709억원을 돌려받는다. 환급대상은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총 19만6000곳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가맹점은 매출이 확인될 때까지 업종 평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반기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원래 내야 할 수수료 보다 많이 낸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

규 카드가맹점 약 21만2000곳 중 19만6000곳(89%)이 환급 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중 86.6%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고, 나머지 13.4%는 연매출액 3억~30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매출액 구간별로 40~5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환급액은 709억1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36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단순 평균금액으로 신용·체크카드 매출액과 우대수수료를 따라 실제 환급금은 달라질 수 있다. 환급액 중 영세가맹점은 484억4000만원(68.3%), 중소기업은 224억7000만원(31.7%)을 받는다.

/나유리 기자

## PC·모바일 경계 허물고 고객친화 채널 변신

신한카드 홈페이지 월방문 1200만명  
심플한 구조, 고객 접근단계 최소화  
초기화면, 고도화된 검색엔진·챗봇

신한카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PC와 모바일 플랫폼의 경계를 허물어 하나로 통합된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 홈페이지는 1300만명이 가입해 월방문고객이 1200만명에 이르는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 중 하나다. 이번 개편으로 고객들이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사용 경험을 하는 사용자 친화 중심의 채널로 거듭나게 됐다.

개편된 홈페이지의 차별화된 특징은 심플한 구조다. 신한카드는 고객의 이용행태 분석에 따라 고객이 찾는 빈도의 90%를 차지하는 서비스를 초기 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 배치해 고객의 접근단계를 최소화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



신한카드 PC·모바일 홈페이지 업데이트

/신한카드

해 고도화된 검색 엔진과 챗봇을 초기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어 추천과 고객별 맞춤 검색 기능 등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 눈에 띄는 기능은 숫자 6자리의 간편비밀번호 로그인이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가입 시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이 필

수였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고객은 등록한 브라우저에서 간편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홈페이지 회원이 아니라도 휴대폰이나 카드를 통한 일회성 인증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브라우저 인증서 기술을 이용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 환경을 구축했다.

/김희주 기자

## 신한생명 전화연결 없이 웹으로 업무 처리

신한생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객대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웹(WE B) 기반 신계약 수정 프로세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전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앞으로 특

약 추가, 삭제, 가입금액 변경 등의 신계약 수정을 원할 때 고객창구 방문이나 전화연결 없이도 모바일 웹 접속만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앱(App) 설치나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도 업무가 가능해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변경을 원하는 내용에 양쪽의 전자서명 동의만 완료하면 수정할 수 있게 했다.

신한생명의 '모바일 웹 보험업무 간편 서비스'는 지난 2월 처음 선보였다. 소액보험계약대출 등과 같은 업무를 간편하게 웹 URL을 발송 받아 이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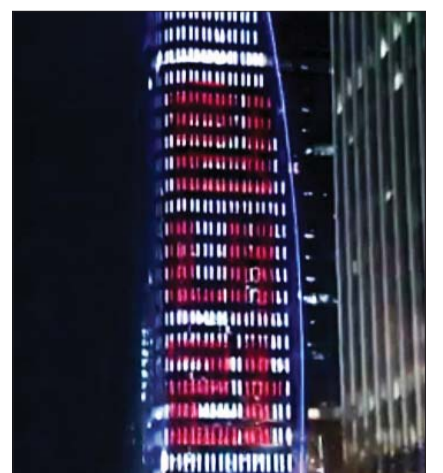
/김희주 기자

## 하나은행,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메시지'

하나은행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응원하기 위해 '대국민 응원의 빛'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과 흥대 정문 앞 H-PULSE 건물에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힘내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대구·경북지역 전 영업점 창구에 아크릴파티션을 설치 운영해 코로나19 확산 제어에 동참한다.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해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외벽에 '힘내라' 문구가 불을 밝히고 있다. /하나은행

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나유리 기자